

ニュースレター

ふくやま多文化共生

2012年10月

No.2

発行：福山市多文化共生の場づくり
推進委員会
福山市人権推進課
TEL：084-928-1006
MAIL：e-and-g@mx41.tiki.ne.jp
URL：http://ww41.tiki.ne.jp/~e-and-g/
http://newtabunka.blog.fc2.com

多文化共生を学んでみませんか

現在、福山市には約6,400人の外国籍の方が暮らしています。

これは、福山市の人口約47万人に対して約1.4% (73人に1人) が外国人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これに、帰化して日本国籍を取得している方や、市外から市内の職場や学校などに通う「生活圏が福山市内」といった外国人の方々も含めると、この数字はもっと大きくなります。

こうした急激な国際化や文化の多様化等に対応するため、福山市においても「多文化共生センター」の開設が予定されています。この「多文化共生センター」の開設・運営に向けて、このたび「福山市立大学の先生方」「福山市職員(人権推進課、松永生涯学習センター)」「NPO」が共同して「多文化共生理解・多文化共生センターマネジメント講座」を開催いたします。みなさん、この機会に多文化共生について、ぜひ学んでみましょう。

**多文化共生理解
多文化共生センターマネジメント
講座**

【日時・内容】
右表の通り

【対象】
多文化共生に関心のある
市民および学生の方々

【受講料】
無料

【主催】
福山市多文化共生の場づくり推進委員会

【申し込み先・連絡先】
福山市役所 人権推進課
084-928-1006
jinken-suishin@city.fukuyama.hiroshima.jp

NPO法人e&g 研究所
090-2002-8644
e-and-g@mx41.tiki.ne.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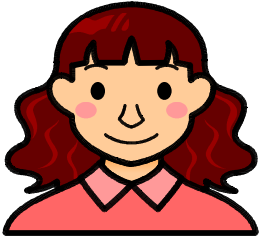
月日	講師	内容
第1回 11月17日(土)	第1講座 福山市立大学 教育学部 児童教育学科 准教授 劉 郷英さん	日本語教育と母国語教育の現状と課題
	第2講座 可児市多文化共生センター 事務局長 各務 眞弓さん	多文化共生センターの役割と活用
第2回 11月24日(土)	第3講座 福山市立大学 教育学部 児童教育学科 教授 田淵 五十生さん	福山市の定住外国人の現状と課題
	第4講座 多言語センターFACIL 理事長 吉富 志津代さん	NPOの多言語 / 多文化ビジネス
第3回 12月1日(土)	第5講座 福山市立大学 都市経営学部 都市経営学科 教授 前山 総一郎さん	まちづくりと共生の現在の問題と 地域まちづくりセンター
	第6講座 参加者の みなさんが主役です	講座の振り返りと、私たちの役割 参加者による意見交換 / ワークショップ

♪前半の講座 13:00~14:45 ♪後半の講座 15:00~17:00

【会場】

第1回目 (11月17日) 第3回目 (12月1日)
福山市立大学 小講義室 E (2階)
福山市港町2丁目19-1 ☎084-999-1111
※当日は、西側の管理棟の防災センターからお入りください。

第2回目 (11月24日)
福山市人権交流センター 第1会議室 (3階)
福山市佐波町262-3 ☎084-951-5700



私は両親が韓国出身で、私自身は中国東北部延吉市で生まれ、育ちました。延吉市は、今は中国の一部ですが、遠い高句麗時代から長い長い年月に渡って、朝鮮半島から移住してきた人たちがコミュニティを作っている所です。そのため、みんな韓国語を話し、韓国の伝統に基づいて年中行事を行い、礼儀作法も忠実に守ってきました。今は状況がいぶ変わりましたが、私の幼かった時には、周りで漢民族を見ることが難しいほどでした。私の両親は、親に付いて移住してきたのですが、民族精神が強かった為、漢文化を受け入れながらも同化せず、私たちが小、中、高等学校と韓国式学校に行かせ、言葉はもちろん、芸術、文化も身につけるようにしてくれました。しかしながら、学校では中国語も習い、話す機会は無かったものの、小学校から高校までの12年間、漢字、漢文にたくさん触れてきました。このような背景は、後に韓国語を教える上で、とても重要な土台となりました。

1995年に来日し、それから結婚、就職、出産、育児とあっという間に17年が経ちました。小さい時から教えることが大好きだったので、10年近く勤めていた会社を辞めて、子供英語教室の先生の道を選んだところ、丁度韓流ブームが始まり、気が付いてみると韓国語の世界にどっぷり漬かっていました。

それから8年間、韓国に興味を持っていらっしゃるたくさんの方々に出会いました。レッスン中では、韓国語でお話する時間がありますが、皆さんそれぞれのレベルに合わせて、ドラマの話、K-POPの話、旅行の話等で楽しい話題が尽きません。そして、たまにみなさんと一緒に韓国旅行をしながら百聞は一見にしかず、と韓国で生の体験をしたりします。

韓国語は難しいと皆さんがおっしゃっています。それで、日本人の皆さんがいかに分かりやすく、楽しく学べるかとずっと教えながら考えていくうちに、たくさんヒントを得ることが出来ました。その中の一つの例として、韓国語と日本語は語順がほぼ同じであるだけでなく、発音においても相談して作ったかのように、関連深いです。それで、韓国語の難しい音を発するとき、日本語の音をどのように変えればよいか、コツさえ捉まれば誰でも正しく発音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外にも韓国語の勉強のコツはたくさんあります。またの機会にご紹介しますね。

私の目標は、韓国語を分かりやすく、楽しく教える道の達人になることです。みなさん、韓国語の勉強で困ったことがありましたら、ご質問をお寄せくださいね。

待っています。

저는 부모님들이 한국출신이고 저 자신은 중국동북부 연길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연길시는 지리상 중국땅의 일부분이지만, 먼 옛날 고구려 시대로부터 오랜 세월을 걸쳐, 조선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오면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사는 지역입니다. 하기에, 모두들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의 풍습에 따라 일년행사를 진행하며 한국의 예의범절도 고스란히 지켜 왔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 졌지만 제가 어릴 때는 주변에서 중국의 한민족을 보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부모님들을 따라서 중국동북부에 이주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족심이 강한 그들은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일면서도 동화하지 않으려고, 우리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부 다 한국어학교에 다니게 하고, 한국어는 물론 예술, 문화도 배우게 하였습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중국어도 배우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12년간, 한자를 익히고 한문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배경이, 후에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있어서 더 없이 중요한 토대로 되었습니다.

1995년에 일본에 와서, 결혼, 취직, 출산, 육아 등을 경험하는 사이에 어연간 17년이 지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한 저는, 10년 가까이 일한 회사를 그만두고 아동영어교실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부터 한류열풍이 시작되었고, 어느 새 저도 한국어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8년간,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업시간에는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토크타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각자의 레벨에서 드라마랑 K-POP 랑 여행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즐거운 이야기거리로 항상 웃음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함께 한국여행도 가는데, 백문 불여 일견이라고 한국에서 많은 좋은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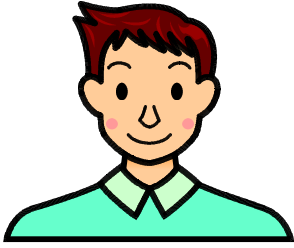
일본분들한테서 한국어가 어렵다는 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일본분들이 더 알기 쉽게, 그리고 재미나게 배울 수 있을지 거듭해서 고민하다 보니, 많은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와 일본어는 어순이 거의 비슷할 뿐만 아니라, 발음도 어떻게 보면 서로 상의라도 하고 지은 것처럼 많이 비슷합니다. 거의 전부의 한국어 발음은 일본어 발음을 조금만 변화시키면 되는데, 힌트만 제대로 찾으면, 그 누구든지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어를 더 재미나게 배울 수 있는 힌트는 많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의 목표는, 한국어를 알기 쉽게, 재미나게 배워 주는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어공부를 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보내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ブルデンシャル生命保険(株)
ライフプランナー
平井周熙 (ひらい ジュヒ)



私は今から17年前、27歳の時に日本に初めてきました。

当時、ソウルのホテルでホテルマンをしていた頃、旅行に来た妻と出会い国際結婚をして今は福山で、16歳の高校2年生の息子と義理の母と4人で楽しい日々を過ごしています。

日本に来た頃は今のよう

にも出来ず、仕事をするのも買い物に行くのも大変なストレスでした。

しかし、周りの方々の暖かい声援のおかげで早く日本語が出来るようになりました。

日本の生活が始まり3ヶ月くらい過ぎたある日、家族で遊びに行った時、私が「とりあえず、食事にしましょう!」と言うと「難しい日本語をよく覚えているね」と義理の母がびっくりしました。

学校できちんと日本語を習った訳ではありませんが、一日でも早く日本語を上手に喋りたくて、時間があれば日本のドラマを一生懸命見るようにしていました。「遠山の金さん」を毎日見ていたので私の日本語が時代劇風になってしまい、よく笑われました。

ホームドラマを見ると、生きた実用語を理解することがスムーズでした。

ただ、言葉の壁は自分の力で何とかクリアしても、文化の違いや考え方の違いは今でも理解できないことがたくさんあります。

立前と本音の違いや、食事に行った際に親子の間で食事代を割り勘することや、返事のあいまいさなど理解出来そうで出来ない場面が多くありました。

しかし、そこにも日本人らしい良き国民性がたくさんあります。相手に対するきめ細かい配慮や、約束や法律をきちんと守ること、町をきれいにすること、勤勉に働き儉約な生活をおくるなど、数多くあります。

私以外の外国の方も同じような経験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外国人として生活をしていくのは簡単ではありませんが、まずは日本の言葉や習慣を理解し、国は違っても同じ地域で、同じ空気を吸う同じ人間としての暮らしが出来る事が一番の幸せです。

そのために、今後は異文化交流にも積極的に参加して、お互い信頼し、尊敬できる社会を作るために、微力ながら頑張っていこうと思う次第で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저는 지금부터 17년전,27살때 처음으로

일본에 왔습니다.당시 ,서울에 있는 호텔에서 일하고 있을때 여행을 왔던

아내와 만나게 되어

국제 결혼을하여 후쿠야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고등학교 2학년인 16살짜리 아들과 장모님과 함께 넷이서 즐거운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에 처음 왔을때는 지금처럼 일본말도 못하고 일하는 것도 시장을 가는것도 매우 힘든 일 이었습니다 .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성원 덕분에 빨리 일본어를 배울수 있었습니다 .

일본어 생활이 시작되고 3개월이 지난 어느날 가족 셋이서 놀러 갔을때

제가 「 우선 식사를 할까요?」

했더니 장모님께서 어려운 일본말을 어떻게 외웠냐며 놀라셨습니다.

학교에서 제대로 배운 일본말은 아니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일본말이

하고싶어 시간만 나면 일본 드라마를 열심히 보았습니다.

「도야마노 김상」 을 매일같이 보니까 저의 일본말이 옛날 시대풍으로 변해 사람들과 웃음을 샀습니다.

홈 드라마를 보면 살아있는 실생활용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지 언어의 장벽은 자신의 힘으로 극복 할 수 있다하더라도 문화 의

다른점 이라든지 생각 차이 까지는 이해 가 안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

예를 들면 ,겉말과 속마음 이 다르거나 ,부자지간에도 식사후에 돈을

나누어서 계산한다든지 대답할때 예도 아니고 아니오 도 아닌

불확실한 대답 등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이 이었습니다 .

그러나 , 상대방을 생각하는 섬세한 마음 표현 이라든지 약속시간,범을

잡지키는 행동 이라든지 거리를 항상 깨끗이 하려는 마음가짐

열심히 일해서 검약한 생활을 하는등 일본인 다운 본받을 만한 국민성도

많이 있습니다 .

저이외의 많은 외국인 들도 같은 경험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

외국인 으로서 생활해가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닐 줄 알지만 우선은 자기자신이 일본의 언어 ,문화를

이해하고 나라는 틀려도 같은 지역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은 인간으로써 생활할수 있다면 행복하겠습니다 .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는 다른 문화 교류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서로

신뢰하며 ,존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작지만 힘이 될까 합니다 .

감사합니다 .

ふくやまベトナムまつりが 開催されました

9月30日（日）、福山市駅家コミュニティセンターで
第3回ふくやまベトナムまつりが開催されました。

台風の影響で天気には恵まれませんでした、
参加者600人という大盛況ぶりでした。



ベトナムの獅子舞が、会場を練り歩く！



「アオザイ（民族衣装）」と
「ノン（笠）」の優雅な踊りに会場はウツトリ♡



かわいい子どもたちが、ベトナム民話の劇を披露してくれました。



ベトナムポップスを、大熱唱！ 会場もノリノリでした♪

直接ふれあえば、
どんなに言葉や文化が違っていても、
きっとその距離を飛び越えられる、
私たちはそう信じています。



福山市が出している多言語情報紙

外国人市民への情報紙が市役所にあります。
英語・中国語・ポルトガル語・やさしい日本語です。
無料です。送ってほしい人は、
市民相談課 (TEL 084-928-1050、FAX 084-928-2846)
へ連絡をしてください。

【編集後記】

- 福山市にも「多様な文化的な背景を持った人たちが」多く住んでいます。使う言葉もさまざまです。
- お互いが理解しあうためには、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方法を工夫する必要があります。その一つが「多言語FM放送」です。そして、「ニュースレター ふくやま多文化共生」をつくりました。
- このニュースレターと合わせて、ホームページやブログも見てください。

♥ワールドシップ <http://ww52.tiki.ne.jp/~soseisha/worldship/>
♥e&g研究所 <http://ww41.tiki.ne.jp/~e-and-g/>
♥多文化共生のまちづくりブログ <http://newtabunka.blog.fc2.com/>
♥「福山市市民相談課」や「ふくやま国際交流協会」のホームページも見て
ください。
(Tamio Murata)



MCナムさんの「魂のラップ」に、大感動！
子どもたちから「折りバラの花束」が贈られました。